

조선후기 서울 市井人의 생활상과 새로운 志向 意識

李文奎 (서울시립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2. 서울의 경관 특성
3. 서울 시정인의 생활상
4. 서울 시정인의 새로운 지향 의식
5. 맺음말

1. 머리말

서울은 빼어난 형승을 지녔고 또 천험의 요새여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훌륭한 안거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 조선조 권력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전국 각처의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조선후기에 이르면 인구가 집중되어 대도시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¹⁾

1) 조선 초기 서울 도성의 인구는 대략 1만 안팎을 헤아렸다. 그러던 것이 1669년(현종 10)의 인구 조사에서는 2만 안팎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17세기에 계속된 자연 재해 현상으로 정부가 특별 비상 경제 대책을 세우자 농촌 인구가 서울로 몰려 들었던 것이 주원인이었다. (李泰鎭, 『조선 시대 서울의 都市 발달 단계』, (서울학 연구 창간호).

서울에는 전국 각지의 물화가 집중되었고, 상업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은 점차 이익 사회의 모습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그결과 전통 가치관과 신흥 가치관 사이에 심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익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계층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사회상의 변화에 대해선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축적되었다.²⁾ 그러나 이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그리 흔한 편이 못되며,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만 국한하여 그 생활상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³⁾ 최근 서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서울학 연구소, 1994), 35-36쪽.) 또한 17,8세기에 이르면 농촌에서 배제된 이농인구가 서울로 몰려 들었고, 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청계로와 종로 주변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모해 갔다.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 생활, (서울학 교양총서1, 서울학 연구소, 1994) 20-21쪽 참조)

- 2) 조선조 후기 사회상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업적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II, 一潮閣, 1970.1971.

金泳謨, 朝鮮支配層研究, 一潮閣, 1997.

鄭奭鐘의,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 풀빛, 1981.

鄭奭鐘,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姜萬吉,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4.

鄭玉子,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1988.

- 3) 본고와 관련하여 이 방면에 선편을 잡은 연구 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金東旭, 『板本攷...한글 소설 坊刻本の 成立에 대하여』, 春香傳 研究, 연세대 출판부, 1965.

林煥澤, 『18,9世紀 이야기꾼과 小說의 發達』, 金烈圭, 조동일의, 古典文

고전 문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나⁴⁾ 아직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단계이다. 그만큼 서울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탐색을 요하고 있는 미개척 분야라 할 만하다.

서울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고뇌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연구이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영위했으며, 무엇 때문에 고뇌했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갔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삶의 실상이야말로 바로 역사를 움직여 간 힘이었고 미래의 지평을 열어 나가는 동력이 되겠기 때문이다.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데는 문학 작품만한 것이 없다. 문학작품 속에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뇌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 후기 서울 시정인의 삶의 모습과 그 새로운 지향의식을 이 시기에 이루어진 문학 작품, 특히 한문 단편과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林榮澤, 『漢文短篇의 形成過程에서의 講談師』,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一潮閣, 1978.

李佑成, 『18세기 서울의 都市의 樣相』, 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2.

- 4) 한국 고전 문학 연구회는 1994년도 하계 학술 대회로 서울 정도600년 기념 연구 발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본고와 관련하여 이 때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철, 『19세기말 : 20세기 초 서울의 도시화와 시정 세태』.

김시업, 『허생전에 나타난 18세기 서울의 형상』.

徐鍾文, 『漢陽 都邑에 대한 文學的 形象化의 두 方向』.

이혜순, 『한시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2. 서울의 경관 특성

조선조가 한양을 수도로 삼은 것은 그곳이 풍수지리상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東國輿地勝覽』, 卷之三, ‘漢城府’條에 보면,

북쪽으로 華山(삼각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 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北岳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더하고, 南峰이 앞에 솟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러싸였다. 범이 걸터 앉고 용이 서렸으니 金城天府로다. 8도가 관할되고 겹으로 된 문에 딱다기를 치니 하늘이 만든 견고함이다.⁵⁾

라 하였으니, 서울은 전략상 요충지로 安居하기에 편리한 점 때문에 수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개국 공신인 權近은 “화산은 높이 솟고 한강수는 도도히 흐르니 하늘이 만든 견고함이 금탕보다 장하도다(華山峨峨 漢水湯湯 天作之固 壯于金湯)”⁶⁾라고 읊었으며, 鄭麟趾도 “서울은 화산을 등에 지고 있고, 한강을 얼굴에 대하고 있어 형승이 천하에 으뜸이다(京都背負華山 面對漢水 形勝甲天下)”⁷⁾라 감탄했다.

서울이 山河襟帶의 形勝地임은 日人학자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은 동경 126도 59분, 북위 37도 34분에 위치하고 북으로 白岳, 남으로 南山서로 仁旺, 동북으로 낙타와 같은 여러 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성곽을 이루고 있으며, 成疊은 이들 여러

5) 北據華山 南臨漢水 山河重阻 道里正均 北岳後聳 官殿增輝 南峰前峙 城郭四圍 虎距龍盤 金城天府 八都分符 重門擊板 天作之固

6) 『東國輿地勝覽』, 卷之三, 漢成府條 참조.

7) 같은 책, 같은 쪽.

산의 꼭대기를 걸쳐 시내『溪』를 타넘어 꾸불꾸불 끝없이 이어지고, 한강의 물은 성밖의 동남 일대를 어워싸 山河襟帶의 形勝地이다.⁸⁾

서울이 또 天險의 요새임은 『擇里志』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잘 말해 준다.

한양의 전면에는 큰 강이 막았고 오직 서쪽으로 길 하나가 황해도와 평안도로 통하게 되어 있다.

도 성에는 서쪽으로 五里를 가면 沙峴이 되고 그 고개를 넘으면 또 綠攀峴이 있다. 당나라 장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한 사람이 관문을 막으면 만 사람으로도 열 수 없겠다.” 하였다. 또 서쪽으로 40리를 가면 碧蹄嶺인데 곧 임진년 왜란 때에 李如松이 패전한 곳이다. 왜적이 평양에서 패하고 한양에 돌아온 후 여위고 약한 군졸만을 高陽縣에 들락날락하게 하였다. 여송이 개성에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공을 세우는 데에 급급하여 큰 부대는 개성에 머물러 두고 장비를 가볍게 한 병졸만으로 왜적을 덤치게 하였다. 겨우 백제령을 넘자 왜적이 사면에서 크게 몰려와서 여송의 휘하 장정 중에 총에 맞아 죽는 자가 많았다. 駱尙志는 본디 힘이 세어서 駱千斤이라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겹갑옷을 입고 여송을 거드랑이 밑에 끼어서 일변싸우며 일변 몰려나와 겨우 피하였다.⁹⁾

서울은 천험의 요새이기도 하지만 또한 향토적 서정이 물씬 풍겨나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19세기 말경 조선에서 활동했던 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서울 근교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리만큼 시적이다.

서대문을 지나면 훌륭한 마차길이 있다. 이길을 따라가면 서울의 背後라 할 수 있는 산줄기의 궁벽한 돌출부에 설치된 두 개의 관문을 지나게 된다. 이 길을 따라 첫 관문을 지나면 나무가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물 좋은 한 계곡이 나타나는데, 이 곳을 나릿골(Valley of Lillies)이라 한

8) 村山智順, 崔吉城 옮김, 朝鮮의 風水, (民音社, 1990), 553-554쪽.

9) 李重煥著, 李翼成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69), 147-148쪽.

다. 물론 이곳은 墓地이다. 계곡과 눈에 보이는 토지는 온통 王室의 저승으로 확보되어 있다.

옛날 이 지방의 이 터는 문자 그대로 계곡이 온통 개나리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서양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나릿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곳이다. 그 꽃들이 너무나 화사하기 때문에 꺾을 수조차 없다...초여름이 되면 여기저기의 산골짜기에서 뻐꾸기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온다. 그리고 종달새가 하늘 높이 치솟아 나래를 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토해 낼 때면 그들(나무장소 소년:필자주)의 가슴도 주위의 아름다움에 터질 것만 같은 모양이다. 심지어는 가마꾼조차도 말을 멈추고 그들의 노래를 듣는다. 큼직한 왜가리가 논에서 날아오른다. 흰황새도 날개를 펴려거리며 우아하게 비상하는데 언덕 위에 내릴 때에는 마치 미끄러지는 듯하다. 까치도 많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며 다정하게 우지진다.¹⁰⁾

이와 같이 서울은 천험의 요새요, 아름다운 고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달랐다. 18세기 후반에 서울에서 성장했던 朴齊家(1770-1806)는 서울의 산천 기상과 아름다운 조망이 “평양, 경주의 고도(古都)와 태백, 금강의 명산이 서울보다 나은 데가 없으며, 저 산천과 강호를 찾아가면 林壑泉石의 觀賞이 있으나 서울을 버리고 탄 데서 구할 생각은 없다”¹¹⁾고 말할 정도로 서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강했다. 이처럼 서울은 사람들의 안거처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산천 경계를 배경으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과제라 하겠다.

10) H. N. 알렌, 甲福龍譯, 朝鮮見聞記(搏英社, 1979), 43-45쪽.

11) 이우성, 앞 논문, 51쪽 참조.

3. 서울 시정인의 생활상

1) 상업의 번창과 생활 습속

17세기 서울은 亂塵이나 私商都賈와 같은 자유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종래의 六矣塵중심의 어용적 성격의 상업 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雲從街중심의 종래의 市塵도 변모하여 점차 베오개 『梨峴』 일대와 서소문밖으로 장시가 확대 돼갔다.¹²⁾ 李鈺(1760-1812)의 『桃花流水館小藁』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은 당시의 서울 시정의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그려 주고 있다.

서울에 세군데 큰 장이 서는데, 동편은 베오개, 서편은 昭義門, 중앙은 운중가이다. 모두 좌우 양편으로 전이 늘어서 은하수처럼 벌여 있다. 온갖 장인바치며 장사치들이 저마다 가진 바 물건을 내 놓으며 싸인 物貨가 구름처럼 밀리고 물처럼 모인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冠帶, 의복, 신발, 식료품을 구입한다.¹³⁾

19세기에 지어진 『漢陽歌』도 당시 서울의 각 시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칠패(남문밖에 있었던 시장)의 생선전, 남문 안의 毛塵, 上米塵, 水閣다리(남대문로 3가에 있던 다리) 건너의 床塵, 육주비전의 白木塵, 紙塵, 배전

12) 1791년 辛亥通共으로 私商人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후 사상인들의 상업활동은 급격히 활발해져 이들이 상권은 아현, 七牌에서 더 나아가 용산, 마포, 서강 등의 한강변과 한양 주변의 松坡, 樓院, 松隅店에까지 확장되어 갔다고 한다.(최완기, 앞 책, 20-21쪽 참조.)

13) 李佑成, 林燦澤編, 『李朝漢文短篇集中』 市奸記, (一潮閣, 1973년), 226쪽. 이 책은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이책을 인용할 때는 편의상 책명만 밝히기로 한다.

(布塵), 靑布塵, 縮塵, 魚物塵 및 刀子塵, 광통교 아래의 그림전, 구리개 좌우의 藥塵등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당시 서울 시정의 각색 상점의 모습, 서울 거리의 변화한 문물의 모습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참고로 어물전, 그림전에 대한 묘사를 소개해 보겠다.

어물전을 살펴 보니 각색 어물 벌여 있다.
 북어 貫目 꿀두기며 민어 石魚 통대구며,
 광어 문어 가오리며 전복 해삼 가자미며,
 昆布 미역 다시마며 파래 海衣 우뭇가사리며,

:

광통교 아래까지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屏風次에 百子圖 瑤池宴과
 郭汾陽 行樂圖며 江南 金陵 耕織圖며
 한가한 瀟湘八景 山水圖 기이하다.
 다락벽 鷄犬獅虎 장지문 魚躍龍門
 海鶴 蟠桃 十長生과 壁幃門次 梅竹蘭菊
 橫軸을 볼작시면 九雲夢 性眞이가
 八仙女 희롱하여 投花成珠하는 모양
 周나라 姜太公이 窮八十 老翁으로
 私立을 숙여 쓰고 곧은 낙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周文王 착한 仁君
 어진 사람 얻으려고 손수 와서 보는 거동¹⁴⁾

한편 지금의 을지로 입구에 해당하는 구리개(銅峴)지역은 약국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며, 남대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거리에는 주점,¹⁵⁾ 팔죽집¹⁶⁾ 등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

14) 李石來 校註, 『한양가』, 風俗歌詞集(新丘文化社, 1974), 46-49쪽.

15) 『이조한문단편집 상』, '남문안 주점'에는 남대문 안에서 술장수하는 사람의이야기가 나오며, 『이조한문단편집 하』, '李泓'에는 이홍이 증을 사기처 먹는 과정에서 남대문에서 종각까지 가면서 서너 차례 술집을 들락거린다.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의 외곽 지역에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채소들이 재배되어 중앙에 공급되었는데, 특히 왕십리의 무우, 살곶이 다리의 순무, 石橋의 가지, 오이, 수박, 延禧宮의 고추, 마늘, 부추, 해채, 靑坡의 미나리, 利泰仁의 토란 같은 것들이 유명했다.¹⁷⁾

이로 볼 때 조선 후기의 서울은 이미 오늘날의 서소문, 남대문, 종각, 종로3가 일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상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영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 남북촌의 생활 습속도 달랐다 한다. 鄭來僑(1681-1757)의 『浣巖集』에 실려 있는 다음의 글은 이시기의 서울의 습속을 아는 데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서울의 민속은 남북이 서로 다르다. 종로 이남에서 남산에 이르는 곳이 남부인데, 상인과 부호들이 많이 살아서 이익을 좋아하며 인색하고, 鞍馬와 第宅의 호사를 서로 다룬다. 白蓮峯 서쪽으로부터 彌雲臺에 이르는 곳이 북쪽인데, 대개 貧戶로 有識하는 부류들이 살았지만 왕왕 任俠의 무리들이 있어 의기로 교유하되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신의를 무겁게 여겨 남의 환란을 잘 도왔다. 시인, 문사들이 계절을 따라 상종해서 노닐어 林泉雲月の 낙을 추구하였으며, 곧잘 시편의 多作을 자랑하고 麗句를 겨루었다.¹⁸⁾

이처럼 상업의 발달은 서울의 남북촌의 생활 습속을 달리하

16) 『이조한문단편집 상』, '再會'에는 별감이 팔죽집 할머니와 공모하여 미인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글은 '奇聞'에 수록되어 있는데, '기문'은 조선조 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자, 연대 미상의 야담집이다.

17)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을 보면 이곳들의 채소가 모두 예덕 선생인 엄행수의 거름으로 재배되었다고 한다.

18) 『이조한문단편집 중』, '林俊元', 앞 책, 122쪽.

게 만들었는데, 이는 서울의 경제가 사람들의 습속을 바꿀 만큼 성장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다. 남촌은 이익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면 북촌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고, 이 둘의 대립, 갈등이 조선 후기 사회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빈부 격차의 심화

이 시기 도시 시정인의 특징적인 현상중의 하나는 시장 경제의 발달로 도시 상인들은 점차 부를 축적해 갈 수 있었던 반면에 양반들 가운데 생활은 寒士나 窮班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화 현상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한사나 궁반들의 집단적인 거주처는 남산골 일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¹⁹⁾ 燕巖 朴趾源(1737-1805)의 『許生傳』에 등장하는 허생에게서 보듯 이들은 전통적인 儒의 가치를 내세운 대쪽같은 선비들이긴 했으나 생활적인 면에선 대체로 무능력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삶은 몹시 힘겨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김공 번은 본관이 안동인데 서울의 남산 밑에서 살았으며, 문학과 덕행으로 서울서 이름이 있었다. 그 부인 역시 현숙한 사람이었다. 김공은 고전의 정화를 가슴 속에 정확히 담고 항상 책상만 대하고 앉았을 따름이었고 생업에는 소홀했다. 선대부터 지녀오던 토지, 가장 기물, 노비 등을 차례로 팔아서 생계를 이은 나머지에 부인이 바느질로 업을 삼아 손이 늘 새 없이 밤낮으로 골몰하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해 가는 형편이었다.²⁰⁾

19) 조선조 말기에 편찬된 한문 단편집인 『靑邱野談』의 '安貧窮十年讀易', '識寶氣許生取銅爐', 李源命(1807-?)이 편찬한 『東野彙輯』의 '萬金夫妻致富' 등의 이야기는 모두 『허생전』과 같은 유형의 작품인데, 이 작품들의 주인공이 사는 곳이 하나같이 남산 밑이다. 이외에도 한문 단편집 가운데는 남산 밑에 사는 한사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20) 『이조한문단편집 상』, '陰德', 앞 책, 140쪽. 이 글은 『此山筆談』 乾卷

선비 李某는 집이 남산 밑이었다. 그는 가난을 누리며 독서를 즐겨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10년동안 주역을 읽고 싶은데, 나물밥이나마 조식을 대어 내겠소?” 하니 아내도 동의했다. 이생은 드디어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 앉아 다만 창구멍으로 밥그릇만 드리고 내며 주역 읽기를 불철주야했다. 讀易 7년에 이르러 창 틈으로 내다 보니, 어떤 대머리 중이 창밖에 누워 있지 않은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와보니 자기 아내였다. “이게 웬 일이요?” “밥을 못 먹은 지 닷새째입니다. 7년 뒷바라지를 하다보니 머리칼 하나도 못 남았어요. 지금 사세가 막다른 데 이르러 도리가 없습니다.”했다.²¹⁾

허생과 비교될 만한 이런 인물들은 전통 사회에선 높이 추앙받는, 또 그래야 마땅한 인물상이었다. 그러나 변모된 이익 사회는 이들을 한없이 무능력한 인물로 전락시켰다. 아내의 고통은 김공이나 이생의 능력을 무화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그 결과 이글들은 전통적 가치의 고수가 더 이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시대상을 대변해 준다. 당시 심각한 가난은 이런 남산골 선님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진사가 집이 동소문밖에 있었다. 그는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매일 성균관에 다니며 관내 식당에서 조식 식사에 참여했다가 남긴 것을 들고 바삐 돌아와 아내를 주는 것이었다. 날마다 이 짓이 일과였다.²²⁾

소의문 밖의 홍생원은 홀아비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燠造幕의 役夫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밥을 빌었다. 역부들은 저마다 한 술 밥을 덜어 주었고, 홍생원은 겨자잎에 싸 들고가 두 딸을 먹였다. 어느 날 홍생원이 또 밥을 빌러 왔을 때 훈조막역부가 취중에 욕을 해댔다. “홍생원은 훈조막 부군당이요? 우리

에 수록되어 있다. 『차산필담』은 2권2책으로 되어 있는 편자, 연대 미상의 필사본이나 19세기 말엽 경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 『이조한문단편집 상』 ‘讀易’, 앞 책, 92쪽. 출전은 『청구야담』.

22) 『이조한문단편집 상』, ‘太學歸路’, 앞 책, 229쪽. 출전은 『청구야담』.

들 상전 나오리요? 무슨 까닭에 날마다 와서 밥을 내라 하시오?” 하니, 홍생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돌아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후 5,6일이 지나도록 삼작이 닫힌 채로 있었다. 한 역부가 삼작을 밀치고 들어가보니, 홍생원과 어린 두 딸이 정신을 못 가누고 누웠는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역부가 가련한 마음으로 급히 나와 죽을 쑤어 가지고 갔다. 홍생원은 13세 된 큰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애들아, 이 죽을 먹겠니? 우리 세 사람이 간신히 주름을 참는 데 옛세 동안의 공부가 있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前功이 가석하지 않느냐? 지금 이 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저분이 계속 가져다 준다면 좋겠지만 내일부터 치욕을 어찌 다 당하겠느냐?” 했다. 홍생원이 말하는 동안에 5살 된 막내딸이 죽 냄새를 맡고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었다. 큰딸이 동생을 다독거리려 눕히면서 “자자, 자자.”하고 달래는 것이었다. 이튿날 역부들이 다시 가 보았을 때는 모두 죽은 다음이었다.²³⁾

이 글에서 보듯 당시 한사나 궁반 들의 삶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동소문의 진사는 비록 성균관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내의 밥을 빌여야 하는 기막힌 신세였고, 소의문밖 홍생원은 역부들에게 밥을 빌어 먹다가 치욕을 견딜 수 없어 집단 자살의 길을 택했다. 물론 이들의 일화는 극히 예외적인 것을 수 있으나, 이런 사실이 회자되어 문학화했다는 것은 이미 대도시 서울이 새로운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증좌이며, 이들로 대변되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이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한편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신흥 부자층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시전상인들이거나 이서, 역관층들이었다. 『청구야담』에 보이는 청산이 된 부호의 딸과 가난뱅이 蔡生이 결연하는 이야기는 양극화된 빈부의 사회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명분만 내세우는 채생 집안의 삶이 삼순구식조차

23) 『이조한문단편집 중』, ‘燠造幕’, 앞 책, 66쪽. 조선 영조 때의 화가 張漢宗이 편찬한 『禦睡新話』에 수록되어 있다.

어려운 극빈의 삶이었는데 반해, 부호의 삶은 가휘 호화의 극치라 할 만하다. 이 글 속의 부호 金命은 영조 말엽 사람으로 대대로 역관 출신으로서 벼슬이 知樞에 이르렀다 한다.

채생이 안내를 받아 복도로 들어가는데, 화원이 둘레가 수백 보고 사방을 회칠한 담으로 둘러졌으며, 그 담장 안으로 연못이 파져 있었다. 연못가에 작은 배를 대어 놓았는데 겨우 2,3인이 탈 정도였다. 배를 타고 건널 때 여귀들이 종긋종긋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윽히 향내를 맡으며 한참을 올라가자 동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무늬 박힌 돌로 축대를 쌓고 가운데로는 층계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채생은 배에서 내려 계단을 밟았다. 계단이 끝이 난 곳에 열 두 난간이 있었는데, 화문석이 화려했고 주렴이 휘황하였다. 주인은 채생을 남겨놓고 들어갔다. 채생이 멍청히 서서 사방을 훑쳐 보니 진기한 풀, 묘한 돌, 이름난 꽃, 아름다운 새들이 바닷가에 가서 海市를 구경하듯 황홀하여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²⁴⁾

채생이 김령의 집안으로 인도된 것은 청상이 된 김령의 딸과 가연을 맺기 위해서였는데, 여인이 거처하는 별채에 대한 위의 묘사는 서사적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보는이의 눈을 경동케 하기에 충분하다. 서리 출신으로 北山 밑에 살았던 부자의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그는 재산이 넉넉하여 스스로 풍류객으로 자처하면서 매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노래와 춤으로 소일을 했으며, 內醫院, 尙衣院, 惠民署, 刑部, 漢城府 등의 관청에 소속돼 있던 醫女, 針婢, 妓女 등 수백 명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것이다.²⁵⁾

물론 이는 과장된 이야기이겠지만 권력과 부를 쥐고 있던 당시 이서 계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4) 『이조한문단편집 중』, '金命', 앞 책, 7쪽. 출전은 『청구야담』.

25) 張漢宗, 『禦睡新話』, '乃寫女母' 참조.

『禦睡新話』에 나오는 長橋 부잣집에 관한 이야기도 당시 신흥 부자들의 생활의 일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 부잣집은 8,9명의 장안 부자들이 항상 모여 노는 곳인데, 歌客과 기생에 술과 안주며 음식이 떨어질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뺨질나게 일락만 일삼고 조금도 적선함이 없이 무당과 판수에 의혹되어 마침내는 모두 파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²⁶⁾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상품의 유통이 활발하던 시대의 추세에 따라 급격히 부를 축척한 신흥 서민 부자들로 보이는데, 부에 대한 가치관의 미정립으로 퇴폐적 풍조가 만연돼 갔던 시대상의 일단을 보여준다. 서울 시정의 사치한 생활의 일면은 서울 종루 거리에 천 냥짜리 靑樓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순조 때 횡성의 李宜略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구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종루 거리에 천 냥짜리 방문이 붙은 청루에 들어가 기생을 위협하여, 그녀를 금강산으로 데리고 가 술청을 열어 큰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다.²⁷⁾ 그런데 여기서 흥미를 끄는 점은 천 냥짜리 청루가 등장할 만큼 조선 후기 사회는 사치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돈을 쉽게 버는 부상들이 등장했다는 사실과 번 돈을 쉽게 써버리는 사회 풍조가 점차 일고 있었다는 사실의 한 반증이다.²⁸⁾ 이처럼 조선 후기 사회는

26) 같은 책, '勸生小斂' 참조.

27) 『이조한문단편집 상』, '美僧', 앞 책, 73-80쪽. 출전은 『차산필담』.

28) 조선조 후기 탕아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 주는 소설로는 『이춘풍전』이 있다.

『이때 서울 다락골에 한사람이 있스되 성은 이요 명은 춘충이라...춘풍이 오입하며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 오입장자와 한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며 주야로 다닐

신흥 부상의 등장으로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도 조선 사회의 내부적 변질을 요구했던 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3) 사기꾼의 성행

상업 자본이 발달하고 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 시정엔 사기꾼들이 등장하여 희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다. 다음의 기록은 당시의 사기꾼이 횡행하던 서울 시정의 모습을 눈에 잡힐 듯이 그려 주고 있다.

서울에 세 군데 큰 장이 서는데, 동편은 배오개, 서편은 소의문, 중앙은 운중가이다...〈중략〉...이에 만인의 눈이 쏠려 오직 이익 그것을 바라고, 만인의 입에 지껄이며 오직 이익 그것을 꾀한다. 한 사람이 팔려 하고 한 사람이 사려 하매 또 한 사람이 거간을 서 해가 뜨면 모이고 해가 지면 파한다. 장판에 다니면 어깨와 등이 서로 부딪히고 서 있어도 갖을 바로 쓰지 못한다. 간교한 소인배들이 고기못을 이루고 새떼를 지어 그곳에 출몰하여 사람을 현혹시킨다. 심한 놈은 주머니를 슬쩍해서 남의 돈을 빼앗고, 그 다음은 거짓을 꾸며서 유리하게 팔아 넘긴다.²⁹⁾

예전 사람은 소박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機智를 숭상한다. 기지는 기교를 낳고, 기교는 간사를 낳으며, 간사는 속임수를 낳는다. 속임수가 횡행하면 세상 길이 어려워진다. 서울의 서대문에 큰 시장이 있었

적에 모화관 활 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두기 장기골패 쌍육 수투전 육자배기 사시랑이 동동이 옛방망이 하기와 아이 보면 돈주기에 어른보면 술 대접하여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 좋은 일년주며 병고지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 노릴 적에 청루미색 달여들어 수천 금을 시각에 없이하니 천하부자 석승인들 그 무엇이 남을손가』 작품의 인용은 張德順, 金起東, 共編, 韓國古典小說選(正音文化社, 1984), 554쪽 참조.

29) 『이조한문단편집 중』, 『市奸記』, 『앞 책』, 226쪽.

다. 이곳은 가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소굴이었다. 가짜로 말하면 백통을 가리켜 은이라 주장하고, 염소뿔을 들고 玳瑁라 우기며, 개가죽을 가지고 貂皮로 꾸민다. 부자 형제간에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형상을 지어 값의 고하를 다투고 왈차지결한다. 시골 사람이 홀깃 보고 진짜인가 싶어서 부르는 값을 주고 사면 판 놈은 피가 들어맞아서 일거에 이문을 열곱 백 곱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도 그 사이에 끼여 있다. 남의 자루나 전대에 무엇이 든 것 같으면 예리한 칼로 찢어 빼간다. 소매치기를 당한 줄 알고 쫓아가면 요리조리 식혜 파는 골목으로 달아난다. 꼬불꼬불 좁은 골목이다. 거의 따라가 잡을라치면 대광주리를 짙어진 놈이 불쑥 '광주리 사려!' 하고 뛰어 나와 길을 막아 버려 더 쫓지를 못하고 만다. 이런 때문에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전장에 진 지키듯 하고 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하지만 골갈 속임수에 걸려 드는 것이다.³⁰⁾

이 인용문은 장시의 성행으로 인한 인심의 변화, 세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화가 쌓이면 자연 소매치가, 사기꾼 등이 생겨나게 마련이어서 유교적 관념 사회는 서서히 이익 사회로 변모하게 되고, 여기에 기생하는 부정적 인물형들인 소매치기, 사기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서울 시정의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은 매우 지능적이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照涯 李生의 이야기는 당시 사기술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를 잘 알려 준다. 이생은 서울 城西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란 토박이 서울 사람이었고, 서울의 어떤 장사치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서문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와 중늬은이가 물건 값을 서로 다투고 있었다. 중늬은이는 아이가 물건을 훔쳐 온 것이니 10푼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아이는 터무니없다면서 심히 욕지거리를 해대며 싸우고 있었다.

30) 『이조한문단편집 하』, '李泓', '앞 책', 199-200쪽. 출전은 李鈺의 『北花流水館小藁』.

이생이 물건을 보니 틀림없는 황대모라 사정해서 12푼에 샀다. 그러나 그것을 圈子塵에 보였더니 한갓 염소뿔이라는 것이었다.³¹⁾ 여기서 보듯 서울 토박이로 자부하던 이생과 같은 자라도 사기술에 걸려들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사기술에 걸려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기 행각과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인물로는 李泓, 白文先같은 이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기꾼의 대표적 인물이면서도 기지를 통한 경쾌한 웃음을 자아내주고 있어, 이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형이라 할 만하다. 백문선은 18세기 무렵 서울에 살았던 인물로 그의 사기 행각은 어리숙한 중을 등쳐먹는 등 악의적 일면을 보여 준다.³²⁾ 이에 반해 이홍의 사기 행각은 보다 의젓하고 세련된 인상을 자아낸다. 그가 大商인 듯이 차리고 안주의 콧대 높은 기생을 띄어 내는 사기 수법은 가히 최대의 사기꾼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는 그가 서울 거리에서 중을 속여 먹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홍의 집이 서대문밖에 있었다. 어느날 꽃무늬 비단 창옷을 입고 왼손으로 蔓胡 갓끈을 어루만지며 호박 扇錘를 굴리고 어슬렁 어슬렁 남대문으로 들어갔다. 그때 남대문 앞에서 중이 권선을하여 경쇠를 치며 시주를 구하는 것을 보았다. 홍이 스님을 불렀다. “스님 예서 며칠서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입죠.” “몇 푼이나 들어왔어?” “겨우 200여 푼밖에 안 됩죠.” “저런 늙어 죽겠다.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사흘 동안에 고작 200여푼이야? 우리 집은 부자이고 아이들이 많다네, 진작부터 부처님께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지으려고 하였더니 스님 오늘복을 만났어. 내무엇으로 시주할까?” 홍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

31) 『이조한문단편집 중』, 『市奸記』, 『앞 책』, 228-229쪽.

32) 『이조한문단편집 하』, 『白文生』, 『앞 책』, 209-211쪽 참조. 백문선에 관한 글은 『樂睡新話』, 『醒睡稗說』(편자, 연대미상이나 조선조 말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 『奇觀』(편자, 연대 미상) 등에 실려 전한다.

고 “유기가 있는데 쓰임이 있을까?”하고 물었다. “유기로 불상을 지으면 게서 더 큰 공적이 없읍죠.” “그래, 나를 따라 오게.” 흥은 앞장을 서서 남대문으로 들어갔다. 등불을 비치는 집을 바라보며 “스님, 좀 쉬어 가세.”했다. 술어미가 술을 데우고 푸짐한 안주를 내놓았다 흥은 거푸 10여잔을 비우고 나서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가 꺾꺾 웃으며, “오늘 나오면서 술값을 잊고왔네. 스님, 우선 자네 바람 속엿 것좀 빌리세, 가서 곧 갚음세.”하여 중이 술값을 치렀다. 그리고 나와서 가다가 중을 돌아보고 소리친다. “스님, 따라오는가?” “예예, 따라가구 말굽쇼.” “유기가 오래된 물건이야, 사람들이 혹 막을지 몰라, 잘 가져가야 할 걸.” “주시는 건 시주님에게 달렸고 가져가는 건 중에게 있습죠. 것도 잘 못하겠습니까?” “그래.” 다시 또 술집으로 들어가서 중의 돈으로 술을 마셨다. 서너 차례 술집을 들락이는 동안에 중의 바람에 담긴 돈은 홀랑 털리고 말았다. 걷다가 또 중을 불렀다. “스님, 사람이란 무슨 일이나 눈치가 있어야 하는 법일세.” “소승은 이와 같이 한 평생을 보낸 사람이라오, 남은 거라곤 눈치밖에 없습죠.” “그래.” 다시 몇 걸름 옮기다가 머리를 돌리고 중에게 말했다. “스님, 유기가 원체 커, 자네 무슨 힘으로 가져 가지?” “크면 클수록 좋지요, 줍시기만 한다면야 만 근이라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래.” 이때 이미 大廣通橋를 건너갔다. 흥은 동쪽 거리로 돌아서면서 부채를 들어 종각 속의 人定鐘을 가리켰다. “스님, 유기가 저기 있어. 잘 가져가 야 하네.” 중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남산을 바라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달음질쳐 사라졌다. 흥은 어슬렁 어슬렁 鐵塵 다리 쪽을 향하여 걸어 갔다.³³⁾

이 흥의 사기 행각을 통해 남대문에서 종각에 이르는 당시의 서울 시정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 온다. 권선을 하는 중의 모습,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술집의 모습은 이 거리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저자 거리였음을 말해 준다. 이흥은 이 거리를 무대로 점잖은 풍모를 하고서 해학적인 사기 행각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묘사의 수법이 치밀해 생동감 넘치는 인물 창조에 성공하고 있다. 이흥과 같은

33) 『이조한문단편집 하』, ‘李泓’, ‘앞 책’, 205-207쪽.

인간형은 상업 자본의 활성화로 인한 시장 경제의 발달과 흥미롭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간형이라 할 만하다.

4) 거지들의 생활상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서울 시정에 많은 유랑 거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특정 지역에 상업 자본이 발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함에 따라 사회의 어두운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의 단적인 예가 앞에서 살펴 본 사기꾼의 모습과 이제 살펴 보려는 거지들의 군상이다.

서울 도성 안에 거지들이 언제나 수백 명이 들끓었다. 거지들은 그들의 법대로 한 명의 두목을 뽑아 꼭지딴(丐帥)을 삼는다. 모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꼭지딴'의 지시에 따라 조금도 어기는 일이 없었다. 거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빌어 온 것으로 정성껏 받들어 '꼭지딴'은 기거 음식이 편했다.³⁴⁾

이 글로 볼때³⁵⁾ 18,9세기에 이르면 서울 도성 안에 이미 상당 수의 거지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여 한 사람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거지 집단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당시 龍虎營의 풍악이 五營 중에서도 제일이었는데, 李性의 사람이 그 패두로 있었다. 그는 호방하기로 이름이 나 서울의 기생이 모두 그를 따랐으며, 그래서 당시 풍류객들은 용호영의 풍악을 불러 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으

34) 『이조한문단편집 하』, '帥', '앞 책', 165쪽

35) 이 글은 1732년에서부터 1812년까지 살았던 成大中の 작품이다.

며, 불러 오지 못하면 수치로 여길 정도였다. 그런데 마침 거지들이 鍊戎臺에 모여 잔치를 하겠다면서 이 패두를 초청하는 것이었다. 패두가 화가 나 “西平君, 洛昌君 대감 잔치에도 내가 갈지 말지 한테 아니 거지 잔치에 부른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치자, 이윽고 거지 두목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패두 집의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사납게 들려 왔다. 내다 보니 온통 헤진 옷에 체구가 장대한 사나이였다. 그가 ‘꼭지판’이다. 눈을 부릅뜨고 이 패두를 쏘아 보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패두님 이마엔 구리를 깔았수? 집은 물로 지었수? 우리 거지떼 수백명이 장안에 흩어져 있어 포도청 순라꾼도 어찌지 못하는 줄 모르오? 몽둥이 하나, 햇불 하나면 족합니다. 패두가 능히 무사하실 듯 싶수? 우리를 이다지 업수이 여긴단 말이우?” 이 패두는 풍각장이로 한평생을 굴러 먹은 사람이라 시정의 물정에 행하였다. 꺾꺾 웃으며 말을 받았다 “자네야말로 남잘세, 내가 모르고 실수했네, 이제 자네의 청을 따르겠네.” 했다.³⁶⁾

이처럼 건강한 체구의 거지 두목이 와서 공갈, 협박하니 기세등등하던 패두도 그만 항복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순라꾼도 이들을 어찌지 못한다는 말로 보면 이미 거지 집단의 세력은 무시 못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암의 단편인 『廣文者傳』에도 거지 광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광문은 서울의 거지 출신으로 약국의 점원 노릇을 하면서 신용을 쌓아 시정에서 금융의 중개인, 보증인 노릇을 했고 기생들의 매니저와 같은 일을 보기도 한, 당시 서울의 서민들 사이에서 명성을 날리던 인물이었다. 광문이 거지에서서

36) 같은책, 166-167쪽.

약국 점원으로, 또 금융의 보증인으로 변신하며 확고한 명성을 쌓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닌 남다른 인간적 덕성 때문이었다. 다음의 장면은 광문이 비록 거지였지만 그가 어떠한 인간성의 소유자였는지를 잘 알려 준다.

광문은 원래 거지였다. 일찍이 종로의 시전에서 구걸을 다녔는데, 못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두를 삼아 움막을 지키게 했다.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여러 아이들은 모두 구걸을 나가고 한 아이가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 아이는 한숨이 나고 전신이 떨려 신음하는 소리가 퍽 슬펐다. 광문은 가련한 마음에 직접 나가서 밥을 빌어 왔다. 병든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모두들 돌아와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광문이 죽인 것으로 의심했다. 모두 덤벼들어 광문을 때려 쫓았다. 광문은 밤에 기어서 동리의 어느 집으로 피신을 하자 그 집 개가 놀라서 짖었다. 집 주인은 나와서 광문을 잡아 묶었다. 광문은 “나는 원수를 피해 숨은 것이지 도둑질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요, 주인 노인이 믿지 못 하시겠거든 내일 아침 시전에 나가 보십시오.”했다. 광문의 연사가 아주 순박한 것을 보고 집 주인은 광문이 도둑이 아닌 줄 알고 새벽에 놓아 주었다. 광문은 인사하고 가면서 떠러진 자리 하나를 얻어 갔다. 집 주인은 수상하게 생각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바라 보니 많은 거지때들이 시체 하나를 들고 水標다리 아래에 와서 그 밑으로 시체를 던져 버리는 것이었다. 광문은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헤진 자리로 그 시체로 싸서 남 몰래 지고 西郊의 공동묘지에다 묻어 주고 한바탕 곡을 하고는 무엇이라 중얼 거리는 것이었다.

이에 집 주인이 광문을 붙잡고 물었다. 광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과 어제 있었던 일을 쪽 말하였다. 집 주인은 광문을 의롭게 여긴 나머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주고 또 잘 대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약국의 부자에게 그를 추천해서 점원이 되게 하였다.³⁷⁾

이로 보면 광문이 거지에서 약국의 점원이 될 수 있었던 것

37) 朴趾源 『燕巖集』, 卷八, ‘廣文者傳’ 참조.

은 그의 의로운 마음씨 때문이었으며, 그의 의로운 행실에 탄복했던 시정인의 도움 때문이었다. 광문이 종로시전에서 구걸을 다녔던 것으로 보아 당시 상업이 발달한 곳엔 많은 거지들이 몰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지들은 자기들 가운데 비교적 쓸 만한 자를 가려 우두머리(패두)로 삼아 움막을 지키게 하고는 각자 구걸을 다니다가 저녁이면 이 움막에 모여들어 잠을 자곤 했다. 거지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집단은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워 상하 명령 계통을 세워 나갔으며, 우두머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여길 때는 집단으로 저항하여 그를 몰아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거지들은 동료가 죽으면 지금의 청계천변 수표교 아래에다 내다 버렸으며, 광문이 시체를 거두어 서교의 공동묘지에 갖다 묻었다는 것으로 보아 서울의 서쪽 교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묻었던 공동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문은 앞에서 본 ‘꼭지탄’과 동렬에 놓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도 거지 집단의 패두였으며, ‘꼭지탄’ 못지않게 기개와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³⁸⁾ 그러나 광문은 끝까지 거지의 두목으로 남지 않고 시정의 생활인으로 돌아와 생활인으로서의 특징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다. 광문과 같은 인물이 시정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달리 신용을 중시했던 당시의 이익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며, 이런 이익사회가 비교적 개방된 사회 체재를 지향해 가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38) 『西廣文傳後』에 보면 광문은 당시 부랑아의 패두 역할을 했거나 기생들의 後陪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朴趾源, 『燕巖集』, 『書廣文傳後』 참조)

5) 科場의 문란상

조선조 후기 과거 시험장의 문란상은 유명하다. 과거 제도의 문란상에 대해서는 실학과 학자들이 많이 언급했고 그 개선택을 강구하기도 했다.³⁹⁾ 그런데 이런 과장의 문란상은 한문 단편 속에도 매우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朴文秀(1691-1765)는 어사로서 유명한 행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를 매우 교활한 사람으로 형상화시킨 작품이 있어 주목된다.

靈城君 박문수 형제는 문필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요행으로 監試解額에 나란히 참여했다. 박문수의 형이 근심하기를 “우리 형제가 無文無筆하고 게다가 買文買筆할 자금도 없는 터에 會試가 가까워 오니 장차 어떻게 觀光을 하겠느냐?” 하니, “科場의 문필이 모두 우리 형제의 것이지요. 당일 모卷이야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고 박문수는 매일밖에 나가서 서울 성내를 돌아다니며, 어느 고장의 어떤 선비가 巨擘이고 어느 고장의 어떤 유생이 書手인가를 탐문하였다. 이러저리 어렵게 길을 통하여 거벽이며 서수들을 만나 보아 일면식을 가져 두었다. 試日을 당해서 그들 형제는 각기 試紙 한 장씩을 들고 남 먼저 입장하였다. 길 옆에 앉았다가 冒入者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나서 맞이했다. “國禁을 범하고 모입하다니 미안치 아니하오?” 이러기를 무릇 네 차례 거듭했다. 그 주인과 모입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제발 관에 고발하지 말도록 애걸하는 것이었다. 박문수는 “우리 형제의 시지에 글을 지어서 써 주면 무사하게 해 드리리다” 하고는, 이어서 “이분은 우리 형님의 거벽이요, 그리고

39) 茶山은 『牧民小書』에서 ‘科場은 난장판이 되어 서로 짓밟고 죽이기도 한다. 왕왕 시험 합격자가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부자집 자식이 글자 한 자도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글과 글씨를 사고 뇌물을 바쳐서 합격자에 끼이게 되는 자가 그 태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오직 이밖에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丁苦鏞, 『牧民心書』, 卷四, 吏典六條, ‘舉賢’ 참조)라고 하면서 당시 과거제도의 모순을 통렬히 비판했다.

저분은 우리 형님의 서수요.” 하고 각기 배정하는 것이었다. 그들 거벽과 서수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시지를 펼친 다음 거벽은 부르고 서수는 받아 썼다. 금방 써냈는데, 글은 한자도 고칠 것이 없고, 글 쓰는 한 획도 서운한 곳이 없었다. 드디어 형제가 나란히 회시의 榜에 참여하였던 것이다.⁴⁰⁾

여기서 보듯 박문수 형제가 會試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모입자들을 공갈, 협박하여 얻어낸 글을 통해서였다. 박문수 형제가 정말 이러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글로 보면 당시의 과장의 문란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무문무필자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매문매필을 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문매필을 할 수 없는 처지라도 교활한 사기술을 쓰면 과거에 들 수 있었던 사회상을 보여 준다. 또한 거벽, 서수들이 과장에 모입하여 代作을 일삼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무능력자들이 과거에 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과거 시험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문란했는지를 잘 말해 준다.

다음의 글은 당시의 과거 시험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잘 알려 준다. 괴산에 사는 校生 郭天擧라는 사람이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서울로 과거를 보러 와서는, 우연히 만난 이 진사의 私草를 모은 권축을 메고 과장에 드러가, 그의 것을 적당히 베껴 드디어 해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주인 이 진사는 노숙한 선비로 과장에서 늙은 분이였다. 과거 불행구 중에 私草를 모은 卷軸이 있었다. 입장할 때 이 진사는 천거를 시켜 그것을 지고 가게 해서 천거에게 科題와 같은 제목의 글을 그 책자 중에서 찾아 보도록 했다. 천거는 교생으로서 근근히 글자를 알아 편편이 조사를 해 보았다. 이 진사가 자기의 것을 다 지어

40) 『이조한문단편선 중』, 『科場』, 앞 책, 252-253쪽. 출전은 『청구야담』.

바치고 나서 비로서 훑어 보니 제목이 같은 것이 여러 편이었고 서로 비슷한 것도 많았다. 드디어 적당히 자르고 붙여서 한 편을 베껴 천거 묶으로 제출하였더니 드디어 함께 해액에 참여하게 되었다.⁴¹⁾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회시까지 보았는데, 이 진사는 낙방을 하고 천거는 붙었다는 사실이였다. 이처럼 이 글은 남의 글을 적당히 베껴 정권하고, 또 그런 것이 합격까지 하던 당시 과장의 문란상, 혼란상을 고발하고 있다.

한문 단편 가운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서울의 수재가 계속 낙방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다. 이일제라는 이는 당대의駢儷文의 대가로서 그가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과장에서 능수능대하는 한 수재(이 사람은 김춘택으로 밝혀진다)를 만나 보고 그의 재주에 감복하고 만다. 그러나 이 수재는 자신이 지은 글을 여러번 정권했으나 그 때마다 매번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⁴²⁾ 이는 과거 시험의 시관이 무능력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고발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한편 과거 시험장 주변에는 많은 노점상들이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엿목판을 지고 과장에 나갔던 양민 소년의 이야기가.⁴³⁾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준다. 또한 과거 시험장 안에는 시험 당사자 외에 여러 잡인들도 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곳에 5,6개의 우산을 한데 합쳐 둥그렇게 펼치고 등붙이며 휘장

41) 『이조한문단편집 중』, '校生,秀才', '앞 책', 104쪽. 출전은 『청구야담』.

42) 같은 책, 105-106쪽.

43) 『이조한문단편선 상』, '代用手票', '앞 책', 168쪽. 출전은 『청구야담』.

이 극히 호사스러운 가운데 진기한 음식으로 廚傳이 낭자해 있었다. 李公은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 보았더니 한 젊은 秀才가 좋은 모포단을 비기고 앉은 옆으로 수십 명의 서생들이 저마다 試卷을 들고 둘러 앉아 모두들 수재가 입으로 부르는 것을 나는 듯이 받아 쓰고 있었다.⁴⁴⁾

이로 보면 과거 시험장에는 시험 당사자 외에도 그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대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음식까지 질편하게 벌여 놓고 시험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 속의 십여 명의 서생들이란 소위 응시생을 도와 주기 위해 고용된 서수들이라 하겠는데, 이는 곧 재력이나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능한 시험보조원을 들 수 있는 당시의 과거 시험장의 풍속도를 보여 주며, 이런 상황 속에선 얼마든지 무능력자가 합격할 수도 있고, 공갈이나 협잡, 사기도 끼여 들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었음을 말해 준다.

6) 약국과 煙肆의 풍경

오늘날의 을지로 입구 일대는 약국이 밀집 되어 있었던 곳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약국은 단지 약만을 팔던 곳이 아니라 시정인들의 약 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리개(銅峴)의 한 약국에 어느 날 어떤 노학구가 불쑥 들어와 여기서 누구와 만나기로 했다면서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밥 때가 되어서 주인이 밥을 같이 들자고 청하자 사양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밥집에 가서 밥을 사 먹고는 다시 와 앉아 있는 것이었다.⁴⁵⁾ 이 글은 노학구의 신이

44) 『이조한문단편집 중』, '校生,秀才', 앞 책, 105쪽.

45) 『이조한문단편집 중』, '銅峴藥局', 앞 책, 189-190쪽. 출전은 『청구야담』, 『海東野書』(조선 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 등.

한 처방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한 글이지만, 또한 당시의 약국이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의 글은 당시 약국이 사람들이 모여 한담하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음을 잘 알려 준다.

그는 사피할 말이 없어서 옷을 주워 입고 나서긴 했으나 아무 데도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어느 약국에 들러 주인에게 “내 소일할 곳이 없어 하던 차에 마침 댁에서 빈객을 잘 대접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종종 와서 놀아도 좋겠소?” 하니 주인이 허락했다. 그 날부터 그는 매일 약국에 나사서 한담이나 하며 지냈다.⁴⁶⁾

약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는 곳이기 때문에 소문의 진원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느 약국이 유명하다는 소문이 나면 서민은 물론 당시의 재상가들도 찾게 되는데, 재상가 자제들이 약국에 들를 때는 “약국 주인은 나아가 영접을 하고 물을 뿌린다 비질을 한다 온통 부산”⁴⁷⁾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약국 주인은 명망 있는 재상가들과 친할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이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부도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어 갔을 것이다.

『광문자전』의 광문이 거지 출신으로 사회적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약국의 점원으로서 그가 취한 의로운 행동 때문이었다. 광문이 부자의 약국 점원 노릇을 할 때 마침 부자의 돈이 없어졌다. 주인은 광문을 의심했으나 광문은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다. 처 조카가 돈을 가져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주인은 크게 부끄러워 광문에게 사과하고는 광문이 의로운 사

46) 『이조한문단편집 상』, ‘白願裨將’, 앞 책, 129쪽. 출전은 『奇聞』.

47) 『이조한문단편집 중』, ‘銅峴藥局’, 앞 책, 191쪽.

람이라는 것을 다른 부자와 큰 상인들에게 널리 광고했으며,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여러 대감들 문하의 측근들에게도 떠벌여 자랑을 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양반들이 광문의 이야기를 한담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며, 서울의 돈 놀이하는 사람들이 광문이 보증을 서면 전당을 잡히지 않고도 한 번에 천 냥을 빌려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⁴⁸⁾ 이처럼 약국은 당시 여러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만큼 가능성의 세계이기도 했다.

서울의 약국은 약 중개상인 약주름들이 모여드는 장소이기도 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약 중개상의 경우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약국은 약주름이 드나들고 시정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또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장소이기도 했다. 壯洞의 약주름 노인은 홀아비로 늙어 자식도 집도 없이 약국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하였다. 4월 어느날 英祖가 毓祥宮에 거동하는데, 마침 소나기가 퍼부어 개천물이 넘쳐 흘렀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소나기를 피해 약국 집으로 몰려 들어 마루 앞 처마 밑에 사람들이 뻥뻥하게 서 있었다. 퍼붓는 비를 보고 약주름 노인이 자신이 겪었던 옛날 일이 생각나서, 퍼붓는 비를 피하다가 어느 처녀와 인연을 맺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그때 청중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아내까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⁹⁾ 이 이야기는 소나기가 두 번의 奇緣을 맺어 주었다는 내용인데,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약국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점,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꽃이

48) 朴趾源, 『燕巖集』, 卷八, '廣文者傳' 참조.

49) 『이조한문단편집 중』, '驟雨', 앞 책, 185-188쪽. 출전은 『청구야담』.

피워져, 이런 장소가 우리의 소설 문학의 발달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한편 약국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했던 곳이 연사(담배 가게)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사에도 약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배 거간꾼이나 시정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 시정의 일, 서민들의 생활담, 진기하고 흥미로운 경험담 등 각종 이야기가 꽃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이야기는 전문적인 이야기꾼인 講讀師가 소설을 읽어 주던 장소로 연사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종로 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稗史를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크게 실의한 대목에 이르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내뿜더니, 담배썬는 칼을 들어 패사를 읽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찢러 죽였다.⁵⁰⁾

이 사건은 正祖 연간에 일어났던 옥사였다. 여기서 패사란 물론 소설을 말한다. ‘영웅이 크게 실의한 대목에 이르러’란 말을 보면 이 때의 패사는 아마도 『삼국지연의』와 같은 영웅을 다룬 소설이었을 것이다. 또 ‘영웅이 크게 실의한 대목에 이르자 패사를 읽던 사람을 찢러 죽였다’라는 말로 보면 강독사가 얼마나 실감 있게 글을 읽어 주었는지, 그것이 당시의 독자를 얼마나 사로잡았는지를 잘 말해 준다. 이처럼 당시의 담배 가게는 소설책 따위를 읽어 주는 장소로도 제공되었는데, 한편에서는 담배를 썬고 또한편에서는 장죽을 물고 담배를 피우면서 강독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당시의 담배 가게의 풍경이 눈에 잡힐 듯 하다.

5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二十, 雅亭貴稿 十二, ‘銀愛傳’

7) 이야기꾼의 등장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시장 경제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생활의 여유를 얻게 됨에 따라 점차 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소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유학자도 생겨 나고, 소설의 독자층도 차츰 확대되어⁵¹⁾ 이제 이야기 문학은 서민 대중 속에 깊이 파고 들기 시작했다. 다음의 몇예들은 이야기 문학이 당시의 독자 대중 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 소위 삼국지연의라는 것은 원나라 사람 나관중에게서 나온 것인데, 임진 후 우리나라에 성행하여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능히 외워 말한다.⁵²⁾

근세 안방 부녀자들의 경쟁은 능히 記事할 만한 것으로는 오직 稗說이라고 여겨 이를 숭상함이 날로 더하고 증가하여 그 종류가 千百에 이르렀다. 僧家에선 이를 淨寫하여 무릇 빌려보려는 자 있으면 그 대가를 받아 이익을 취하니 부녀들이 식견이 없어 혹은 비녀나 팔지를 팔고 혹은 빚돈을 구해 서로 다투어 세를 내 가지고 가서 긴 해를 보낸다.⁵³⁾

諺譚傳奇는 탐닉하여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가정일을 廢置하고 부녀자의 일을 하게 되며, 마침내 돈을 주고 빌어보는 데에 이르러선 침혹함을 그치지 않아 가산을 기울이는 자까지 있게 된다.⁵⁴⁾

51) 拙稿, 『國文小說에 대한 儒學者의 批評意識』, 韓國學報 31집, 一志社, 1986.

52) 金萬重, 『西浦萬筆下』.

53) 蔡濟恭, 『樊巖集』, '女四書'.

54) 李德懋, 『靑莊館全書』, '士小節'.

이상의 글은 조선 후기에 이야기 문학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것이 당시의 독서대중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임진란 이후 이땅에 들어 온 『삼국지연의』와 같은 작품은 사대부들은 물론 富裕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녀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심각하여 가정이 파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생길 정도였다. 승가에선 이를 이용하여를 貫冊 통한 영리 행위를 꾀했고, 실제로 시중에선 세책점이 성행하여 독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도 했다.⁵⁵⁾

이야기 문학은 소위 전문적인 이야기꾼인 강독사가 등장하면서 독자 대중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 들게 된다.⁵⁶⁾ 趙秀三(1762-1849)의 『秋齋紀異』에 언문 소설책을 잘 읽었던 傳奇叟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기수는 언문 소설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사람인데, 앞에서 살펴본 종로 연사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의 강독사도 이 전기수와 같은 부류의 인물로 보여진다.

전기수는 동대문밖에 살고 있다. 언문 소설책을 잘 읽는데, 이를테면 「叔香傳」, 「蘇大成傳」, 「沈淸傳」, 「薛仁貴傳」 같은 것들이다. 읽는 장소를 매달 초하루는 제일교아래, 초이틀은 제이교 아래, 그리고 초사흘은 배오개에, 초나흘은 교동 입구에,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에, 그리고 초엿새는 종각앞에 앉아서, 이렇게 올라갔다다 다음 초이레부터는 다시 내려 온다. 이처럼 내려갔다가는 다시 올라가고 또 올

55) 서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글소설 坊刻本이 성립된 시기는 憲宗 12, 3년(1846-7) 사이로 추정되며, 방각본의 출판은 廣通橋부근에서 일어나서 울지로 어구 일대, 남대문 서소문 밖, 명륜동 창신동 등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金東旭, 앞 논문, 394-394쪽 참조.)

56) 林煥, 「1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앞 논문에서 이 문제가 자세히 검토되었다.

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오고하여 한달을 마친다. 다음달에도 또 그렇게 하였다. 워낙 재미 있게 읽는 까닭에 청중들은 겹겹이 담을 쌓는다. 그는 읽다가 가장 간절하여 매우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러는 문득 읽기를 멈춘다. 청중은 下回가 궁금해서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일컬어 激錢法이라 한다.⁵⁷⁾

또는 앉아서 『水滸傳』을 읽는 자가 있는데, 못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듣고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코를 벌름거리리는 꼴이 눈에 사람이 쓰이지 않는 듯하다. 그 읽는 데를 본 즉 곧 '火燒瓦官寺' 대목인데, 외는 것은 뜻밖에 『西廂記』이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건만 의기에 의어서 입이 미끄럽게 내려 간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 네거리에서 『林將軍傳』을 외는 것과 같다.⁵⁸⁾

앞의 인용은 전문적인 강독사가 등장하여 영리를 취하는 서울 시정의 모습이고, 뒤의 인용은 연암이 舊遼東城 밖 關帝廟堂 안에서 본 장면인데, 연암은 이를 보고 서울 시정에서 『임장군전』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강독사의 동장이 이 시기의 동아시아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전기수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소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성숙했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李業福이란 사람도 소설책을 멋지게 읽었던 일종의 직업적인 이야기꾼이었다.

이업복은 겸인의 부류다. 아이 적부터 언문 소설책을 맵시 있게 읽어서 그 소리가 노래하듯이 원망하듯이 우는 듯이 슬픈 듯이, 가다가는 웅장하여 영걸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곱고 살살 녹아서 예쁜 계집의 자태를 짓기도 하는데, 대개 그 소설 내용에 따라 백태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를 서로 불러다 소설을 읽히곤 했다. 어떤 서리부부가 그의 재주에 반해서 업복이를

57) 趙秀三, 『秋齋集』, 紀異, '傳奇'

58) 朴趾源, 『熱河日記』, '關帝廟記'

떡여 살리며 일가처럼 터놓고 지냈다.⁵⁹⁾

이로 볼 때 이업복은 전기수와는 다른 형태의 전문적인 강독사라 할 수 있다. 전기수는 서울 길거리의 대중을 상대로 소설을 낭독해 주는 이야기꾼이라면, 이업복은 부잣집 가정에 불려다니며 소설책을 읽어 주었던 이야기꾼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전자는 가난한 서민을 상대로 한 전문적인 이야기꾼이라면, 후자는 시정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이야기꾼이었다. 소설이 당시의 양반 계층에보다는 서민층에 보다 깊숙이 침투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업복의 단골들은 대체로 시정의 부유한 상인들이거나 이서 계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나 이업복같은 인물이 전문적인 강독사라면, 吳物棼이란 인물은 전문적인 講談師라 할 수 있다.

서울에 오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담을 잘하기로 유명하여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물을 즐기는 때문에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다. 대개 물음이람 익힌 나물의 이름이요, 오(吳)씨와 오이(瓜)가 음이 비슷한 때문이었다.⁶⁰⁾

오물음은 정조때의 金仲眞이란 이로 추정된다. “김중진이란 이는 나이가 늙기도 전에 이빨이 죄다 빠져서 사람들이 놀리느라 별명이 오물음이라 붙여 주었다. 익살과 이야기를 잘하여 人情物態를 묘사함에 당해서 곡진하고 자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⁶¹⁾는 말로 보아 오물음이 곧 김중진으로 보인다. 이

59) 『이조한문단편집 상』, 『東園挿話』, 앞 책, 271쪽. 출전은 『청구야담』.

60) 『이조한문단편집 상』, 『이야기꾼』, 앞 책, 189쪽. 출전은 『청구야담』.

61) 『이조한문단편집 중』, 『瓜濃』, 앞 책, 72쪽. 출전은 조선 철종때 劉在建이 지은 『里鄉見聞錄』.

로 볼 때 오물음은 인정세대를 곡진하고 자상하게 묘사하여 이야기할 줄 아는 능력으로 재상가 집에 자주 불려다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암의 『閔翁傳』에 나오는 민옹과 같은 부류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⁶²⁾

오물음과 같은 인물은 이야기를 통해 남을 깨우치고 후한상을 받기도 했는데⁶³⁾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꾼의 등장은 조선 후기 소설 문학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제기이』 속의 ‘說囊’도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金翁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이야기를 아주 잘하여 듣는 사람들이 다 포복절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옹이 바야흐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아 살을 붙이고 양념을 치며 착착 자유자재로 끌어가는 재간은 가위 귀신이 돕는 듯하였다. 가위 익살의 제일인자라 할 만하다.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음미해 보면 세상을 조롱하고 개탄하고 풍속을 깨우치는 말들이 있다.”⁶⁴⁾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직업적인 이야기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강담사는 대개 門客, 儻人 부류와 같은 閭巷의 지식인들로, 시정 주변에 놀면서 부잣집이나 대갓집의 사랑방을 주로 演藝舞臺로 삼았다.⁶⁵⁾

한편 이 시기의 서울 시정에는 직업적인 책장수가 등장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당시 서울엔 출판업자가 등장하여 흥미 본위의 소설책을 판각하기도 했으나 아직 서적의 출판은 활발하

62) 민옹은 거침없이 아주 재미있고도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잘해 듣는 이의 마음을 툭 트이게 해 주었다 한다.(『燕巖集』, 卷八, ‘閔翁傳’) 이리 보면 민옹 역시 전문적인 이야기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3) 오물음은 부자이기는 하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宗室 노인을 이야기로 깨우쳐 후한 상을 받기도 했다.

64) 趙秀三, 『秋齋集』, 紀異, ‘說囊’

65) 林煥, 『漢文短篇의形成過程에서의 講談師』, 앞 책, 276쪽.

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曹生이란 사람은 책을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조생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다만 책장수로 세상에 뛰어다니는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귀천현우를 막론하고 그를 보면 누구나 조생인 줄을 알아 보았다. 조생은 해가 뜨면 나와서 시장으로, 서당으로, 관청으로 달린다. 위로는 縉紳大夫로부터 아래로는 小學童子에 이르기까지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는 달리는 것이 나는 듯하였다. 그의 가슴이나 소매에 잔뜩 담겨진 것은 책이다. 책을 팔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술집으로 달린다. 술을 사 마셔 취하고 날이 저물어 달려서 돌아간다. 아무도 그가 사는 집을 모른다, 또 아무도 그가 밥을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벼웃 한벌에 짚신 한 켤레로 다니면서 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⁶⁶⁾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한 아름 끼고 시정 거리를 누비는 조생의 모습, 검소하고 소탈하면서도 기인적 풍모조차 지닌 조생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이 선하다, 조생과 같은 책장수의 등장은 도시의 상업화가 낳은 또 다른 직업인의 모습이며, 이 시기 서울 시정의 생활상을 보다 다채롭게 하는 데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8) 풍류적인 삶

조선 후기 서울 북촌에는 시인, 문사들이 모여들어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17세기말 18세기 초에 걸쳐 서울 북촌에서 이름을 날렸던 풍류인으로는 林俊元을 중심으로 庾纘洪, 洪世泰, 崔大立, 崔承太, 金忠烈, 金富賢 같은 이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좋은 철,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면 늘 같이 모여 자연

66) 『이조한문단편집 중』, 『書曹生』, 앞 책, 111쪽. 출전은 趙秀三의 『秋齋集』.

을 벗삼고 詩酒를 즐기며 의로운 일을 하기를 즐겨했다 한다. 67) 이러한 풍류롭고 의로운 풍속은 金洛瑞등에게 계승되었는데, 김낙서는 늘 험기 있는 패들과 어울려 놀고 신의를 중히 여겼는데, 이는 당시 北社(지금의 삼청동 부근)와 西臺(인왕산 밑 누각동 부근)의 풍조가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김낙서가 中村(서울의 중인들이 살았던 관철동 부근)의 한 여인의 상여를 매었다는 일화 68)는 김낙서의 인물됨, 당시 북부의 협인에 대한 시정인의 존경의 마음 등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청구야담』에는 풍류로 일세를 경동시켰던 沈鏞(1711 -1788)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는 재물에 대범하고 의를 좋아하며 풍류로운 생활을 즐겼는데, 일세의 歌姬, 琴客과 술꾼이며 시인들이 몰려 들어 항상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한다. 특히 그는 남달리 예술을 애호하여 歌客 李世春, 琴客 金哲石, 歌妓 秋月, 梅月, 桂蟾 등 연예인들이 그의 비호를 받고 연예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심공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 집단의 풍류의 예로 압구정 연

67) 임준원은 內需司의 아전 구실을 맡아 신임을 얻어 수천 냥의 부를 일으키자 즉시 사직하고 文詞로 自娛했다. 그는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어울려 놀아, 서울의 재명 있는 자들이 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치로 여겼다. 그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겨 가난한 일가나 친구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도와 주어 그를 부형처럼 모시고 공대하는 이들이 수십 인이 되었다 한다.(『이조한문단편집 중』, '林俊元', 앞 책, 122-125쪽.)

68) 중촌의 한 여자가 죽으면서 북부의 의기 남아들의 손에 자신의 상여가 운반되기를 소원했다는 말을 듣고 김낙서가 개연히 옹낙, 동료 수십명을 데리고 가 장사를 지내 주었다.(『이조한문단편집 중』, '金洛瑞', 앞 책, 126-128쪽, 출전은 『里鄉見聞錄』.)

회와 弘濟橋上의 전별연, 대동강상의 회갑연 등에 얽힌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심공 집단의 풍류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는 압구정 연회에 얽힌 이야기만 소개해 보겠다.

당시 한 駙馬가 압구정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심공과 상의 없이 거문고와 노래를 다 동원하고 빈객을 크게 모아서 한 번 호탕하게 논적이 있었다. 유명한 정자의 가을 밤, 월색은 물결에 부서지는데, 흥겨운 기운이 넘쳐 있었다. 그 때 문득 강 위에서 통소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 오지않는가. 멀리 바라보니 조그만 배가 동실 떠오고 있었다. 한 老翁이 머리에 華陽巾을 쓰고 몸을 입고 손에 白羽扇을 쥐고, 백발을 표표히 날리며 오롯이 앉은 것이 아닌가. 옆에 청의를 입은 두 동자가 좌우로 시립하여 옥통소를 비껴 불고 있었고, 배에 실린 한 쌍의 학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신선 중의 한 분일시 분명하였다. 정자 위의 노래와 풍악은 저절로 그치고 모두들 난간으로 몰렸다. 혀들을 차며 선망의 눈초리를 강에다 쏟아서 연회석은 한명도 없이 텅비고 말았다. 부마는 흥이 깨짐을 분히 여기고 小艇을 타고 나가니 심공이었다. 서로 바라보고 꺄꺄 웃었다. 69)

풍류인 심공과 같이 예술인 집당의 패턴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西平君 公子標관이 또 있다. 공자는 서울의 가객 宋의 노래를 듣기 좋아하여 실솔이 노래할 때는 으레 거문고 반주를 했다 한다. 공자는 음악을 좋아하여 그의 밑에는 송실솔을 비롯하여 가객 이세춘, 조옥자, 池鳳瑞, 朴世瞻 등이 놀았고, 집에는 樂奴 10여 명이 있었으며, 회첩들도 모두 가무에 능했다고 한다. 70)

당시의 연예인들은 이처럼 화려한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니

69) 『이조한문단편집 중』, 『風流』, 앞 책, 200-201쪽. 출전은 『청구야담』.

70) 『이조한문단편집 중』, 『宋실率』, 앞 책, 219-222쪽. 이 글은 文無子 李鈺의 작이다.

다. 예술을 사랑하는 심용과 같은 후원자가 있을 때는 이들의 사회적 대접도 괜찮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신산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 본 추월이라는 기생의 회고담.⁷¹⁾은 이들의 삶의 그늘진 면을 잘 보여 준다.

연암의 『金神仙傳』에도 서울 각 동리에 사는 여항인들의 운치있는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김신선은 弘基라는 이름을 가진 이인데, 酸穀하고 方技가 있어 더러 기특한 효험을 본다는 것이었다. 연암이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해보고자 겸인인 尹生, 甲生을 시켜 그를 찾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연암의 겸인들이 김신선을 찾는 과정에서 서울 시정인들의 운치 있는 생활상이 소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생의 말이 다음과 같았다. “일찌기 들으니 흥기가 西學洞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가 아니고 사촌의 집에 그의 처자를 붙여 두었던군요. 그의 아들한테 물어보니, ‘저희 아버지는 일년 중에 대개 서너 번 들르지요. 친구분들로는 體府洞에 술을 좋아하시고 노래 잘하는 金泰事가 있고, 樓閣洞의 金僉知는 바둑을 잘 두시고, 그 뒷집 李萬戶는 거문고를 잘 타시고, 三清洞의 이만호는 손님을 좋아하고, 美垣洞의 徐哨官과 毛橋 張僉使 와 司僕川邊의 他丞도 같은 분들도 다 손님을 좋아하시고 술을 즐기시며, 里門안 역시 아버지의 벗으로 집에 좋은 꽃은 가꾸시고, 桂洞의 진기한 서책과 古劍를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이런 분들 사이에서 놀고 계시니, 만나고 싶으면 위 분들의 집을 들러 보십시오” .⁷²⁾

김흥기의 이와 같은 교유 행각은 서울 시정의 풍류인의 삶의 모습을 생생히 드러낸다. 당시 서울의 여항인 가운데는 멋

71) 『이조한문단편집 중』, ‘回想’, 앞 책, 205-208쪽. 출전은 『청구야담』, 『海東野書』.

72) 朴趾源, 『燕巖集』, 卷八, ‘金神仙傳’

과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활의 여유와 멋을 즐기면서 운치 있는 삶을 살아 가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4. 서울 시정인의 새로운 지향 의식

1) 인간성의 옹호

주지하다시피 조선조는 과부의 개가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균은 『遺才論』에서 이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고.⁷³⁾ 연암은 『烈女成陽朴氏傳』에서 수절 과부의 인간적 괴로움을 고발하기도 했다.⁷⁴⁾ 따라서 이 시대의 양반 가문에서 喪夫한 딸을 개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교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을 옹호하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한문 단편 속에는 상부의 개가를 비밀스럽게 추진해 보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떤 재상의 딸이 출가했다가 뉘도 안되어 상부하고 친정에 와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아랫방에서 딸이 곱게 몸단장을 하고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보다가 거울을 내던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것을 보았다. 재상은 그 꼴을 보니 어찌나 측은한 마음이 들든지 도로 사랑으로 나와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때마침 문하에 출입하던 잘아는 무변이 들어와 문안을 드렸다. 재상을 사람을 물리치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자네 신세가 곤궁한데, 내 사위가 안 돼 즐라나?⁷⁵⁾

73) 허균은 우리나라가 개가한 자손의 벼슬길을 막기 때문에 많은 인재를 버리게 된다고 개탄했다.(許筠, 『惺所覆藁』, '遺才論' 참조.)

74) 朴趾源, 『燕巖集』, 卷一, '烈女成陽朴氏傳'

75) 『이조한문단편집 상』, '孀女', 앞 책, 226쪽. 출전은 『청구야담』, 『溪西

이렇게 해서 재상은 상부한 딸과 무변을 결연시키고 멀리 북관땅에가 살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상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행동한다. 파루후 캄캄한 밤에 두 사람을 은밀히 성 밖으로 내 보내며, 이들을 떠나 보낸 후 재상은 자기 딸이 자결했다고 소문을 내고는 혼자서 염습해 입관하고는 시가의 선산에 장사를 지낸다.

이 글은 재상의 행위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것임을 잘 말해 준다. 죽지도 않은 딸을 자결했다고 소문을 내 시가의 선산에 장사지낸 것은 상부한 여인의 개가란 당시의 통념으론 있을 수 없다는 것, 상부한 여인을 개가시키는 것은 죽지도 않은 여인을 장사지내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의미를 지낸다는 것, 일국의 재상이라 해도 자신의 딸을 개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치밀한 계획하에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비밀리에나마 딸을 개가시킨 재상은 고식적 관념을 준봉하는 보수적 인물이 아닌, 인간성을 긍정적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개방적 사고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적 통념에 눈을 감기보다는 딸의 청춘을 더 안타까워했으며, 空閨로 한숨지며 일생을 사는 것보다는 멀리 타관에서나마 남녀의 정을 통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진취적 사고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이는 분명 새로운 인간상이며, 이런 인간형이 보수적 관념이 수호자인 양반층에서 나왔다는 것은 시대의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려는 사고는 아무래도 양반층보다는 중인 혹은 상인층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유교적 도덕률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왔으며, 특히 서울의 상인층은 부의 축적과 이로 인한 위상의 변화로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東小門밖에 사는 한 빈한한 진사가 뜻밖에 상부한 두 여자를 만나 一妻二妾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여기서 진사가 처음 만났던 여인은 중인 내지는 상인의 혼자된 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뒤에 맞이한 여인은 현임 재상의 혼자된 딸이었다. 처음의 여인이 진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청춘에 홀로되어 음양의 이치를 모르던 것을 부모님이 안타까이 여기신 나머지 하루는 제게 ‘오늘 밤 너 스스로밖에 나가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의관한 남자를 따라가서 섬기라’ 하시기로 길에 나섰다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만난 여인은 합궁 전에 홀로 된 현직 모 재상의 딸이었다. 재상을 홀로 된 딸을 늘 마음아파하다가 이동지(첫 번째 여인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딸을 진사에게 개가시켰던 것이다. 재상은 사대부 집안이었기 때문에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시가에 부고를 전하고 시가 댁 산에 허장한 뒤 남 몰래 진사에게 개가시켰던 것이다.⁷⁶⁾

서울의 양반이 남의 눈을 피해 상부한 딸을 멀리 시골로 개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14세에 출가했다가 15세에 상부한 서울의 변화한 士宦의 딸을 오빠가 남의 눈을 피해 멀리 안동의 권진사의 아들에게 개가시키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오빠는 누이를 개가시키고자 했으나 온 문중이 반대하므로 부득이 누이를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와, 마침 처가를 다녀오던 권진

76) 『이조한문단편집 상』, 『太學歸路』, 앞 책, 229-233쪽. 출전은 『청구야담』, 『東野彙輯』.

사의 아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하여 취해 떨어진 권진사의 아들을 누이의 방에 데려다 놓고 귀경했다는 것이다.⁷⁷⁾

이상의 이야기는 서울과 같은 대도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고 있었음을 잘 말해 준다. 유교 사회의 제도적 굴레가 아무리 완고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억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상의 이야기는 관념적 논리에 억압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다 가치 있다는 인식의 조심스러운 표현이며, 이러한 가치의 인식이 대도시의 상인, 중인 혹은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분출되고 있었던 시대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2) 현실적 가치의 중시

주지하다시피 조선조 사회는 주자학적 관념을 중시하는 사회였고, 정해진 도덕률에 따라 살기를 강요한 사회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보다는 정신을, 현실보다는 관념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실학 사상이 대두하면서 새로운 사상적 기풍이 진작되기 시작했고,⁷⁸⁾ 또한 서울에 상업 자본이 집중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현실 중시의 사고 방식, 물질 중시의 사고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허생전』에서 허생이 三南의 물산을 독과점하여 이윤을 추고하는 행위나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이 주색에 탐닉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이제 전통적 관념이 현실적 논리 앞에 여지없이 압도당하는 사회 사정을 반영한다.

77) 『이조한문단편집 상』, '古談', 앞 책, 234-241쪽. 출전은 『청구야담』, 『계서야담』.

78) 李佑成, 『實學派의 文學과 社會觀』, 앞 책, 65-79쪽 참조.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각성을 내서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 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왜 도둑질이라도 못하시오?” 했다. 79)

여기서 허생이 전통적 가치관을 대변한다면 아내는 신흥 가치관을 대변한다. 따라서 허생이 아내에게 매도당한다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이 신흥 가치관에 의해 매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생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은 현실 생활에 아무 도움도 못되는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작품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다.

『광문자전』의 광문도 물질을 중시하는 대도시 상업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인물상을 대변한다. 광문은 신흥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는 의리를 중시하는 일은 광문같은 천한 이에 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발전적 인식의 표현인 동시에 이익 사회에서 신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 주는 사실이다. 『광문자전』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이익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었음을, 그 대세를 수용하면서 나름의 질서를 회구했던 당대인의 지향 의식을 잘 보여준다.

『穢德先生傳』도 현실 중시의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예덕 선생은 서울 시중 민가의 똥을 수거하여 근교의 菜園業者에게

79) 朴趾源, 『燕巖集』, 卷十四, ‘玉匣夜話’

거름으로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삼던 인물이다. 이처럼 천한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소설의 중심 인물로 삼고, 또 그 덕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변모된 세계관의 반영이라 할 만하다. 특히 선굴자가 엄행수를 '선생'이라 존칭하지 않을 못마땅하게 여겨 항의하는 자목을 선굴자가 꾸짖는 대목은 자목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이 부정되고 엄행수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관이 옹호되는 현실상을 잘 반영한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그것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이 글은 강조하고 있다.

3)가능성의 세계로서의 서울

서울은 왕의 측근에서 소외되어 낙향했거나 유배를 사는 사람들, 또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하기를 소원하던 모든 사람들에게겐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되는 대상이었다.⁸⁰⁾

그러나 또한 서울은 이 시기의 어느 사회보다도 열린 세계였으며, 그래서 가능성의 세계이기도 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보다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세계였으며, 힘없는 이들에겐 권력 획득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하는 열려 있는 사회이기도 했다. 봉산 땅에 살던 한 武弁이 그의 아내와 나눈 다음의 이야기는 서울에 대한 당시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 준다.

무변이 시골 구석에 파묻혀 있으면 벼슬이 절로 굴러 오겠소? 가세도 이처럼 구차하여 이러다간 일조에 구렁에 쓰러질지도 모르니, 어

80) 이혜순, 앞 논문.

찌 슬프지 않으리오, 나머지 전답을 모두 팔면 4백여냥은 받을 것이니, 이걸 가지고 상경해서 벼슬을 구해 볼 테요, 구하면 살 것이요, 못 구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소?81)

여기서 보듯 무변이 재산을 처분하고 상경할 것을 결심한 것은 서울에 가야 벼슬을 얻을 수 있고, 벼슬을 얻어야만 생활고를 타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영남 寒士에 얽힌 이야기도 서울에 관한 비슷한 인식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당일 벌어서 겨우 당일 끼니를 예워가고 있으니, 어느 겨울에 영구히 살아갈 방도를 차리겠소? 이렇저렇 하다가 노경에 가서 혹 오래 병으로 몸져 눕게 되면, 꿈작없이 죽음을 기다릴밖에 도리가 있겠소? 내가 한 번 떨치고 멀리 나가서 영구히 살아갈 방도를 강구해 보겠으니, 5,6년간 당신은 남의 길쌈이나 하고 애들 에게 나무나 주워 오게하여 가가스로 입에 풀칠이나 해 가며 살아가려오?82)

물론 여기서 한 번 떨치고 멀리 나가겠다고 한 것은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말이며,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가능성에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뜻이다. 이처럼 서울은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능성의 세계,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세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서울이 당시인에게 가능성의 세계, 도전해 볼 만한 세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서울이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무 힘이 없는 자라도 권력층에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의 호감을 살 수만 있으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81) 『이조한문단편집 중』, '鳳山武弁', 앞 책, 294-295쪽. 출전은 『청구야담』.

82) 『이조한문단편집 상』, '嶺南寒士', 앞 책, 135-136쪽. 출전은 英正 시대 老論系학자인 安錫徹의 『橋別集』.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⁸³⁾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 온 이들은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그래서 이들은 서울의 대감 집에 부로 들어가기도하고⁸⁴⁾ 일부러 평의 눈을 화살로 꿰어 대감 집에 던지고는 평을 찾으러 왔다고 대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한다.⁸⁵⁾ 이는 모두 권력자에 접근하기 위한 술책이었으며, 권력자에 접근하여 그의 신임만 얻으면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믿었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御營廳의 순라도는 나졸과 牌將을 일부러 때려 주고 홍정승 앞에 잡혀 간 盧同知에 관한 다음의 일화도 힘 없는 백성들이 힘 있는 권력자에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잘 알려 준다.

소인은 곧 남양의 擧子로 약간 용력도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온데, 운수가 기박하와 회시에 응시한 것이 전후 무려 30차에 이르렀으며, 이번에도 또 낙방을 하고 스스로 신세를 도라봄에 죽음을 구해도 얻어지지 않았습시다. 재상의 문하에 의탁을 해서 발신할 피를 세워 보고자 해도 또한 길이 없었사옵시다. 지금 명망이 사또보다 나을 분이 없기로 적이 한 번 뵈고자 했으나 문지기의 가로막는 바 되어 마지 못해 이런 계교를 부려 본 것입다. 술라꾼을 두들겨 팬 즉 반드시 이 뜰 아래 잡혀올 것이라 한 번을 尊顏을 뵈고 진정하려는 것이옵지요. 만약 때리지 않고 기껏 야경을 범하기만 하면 執事廳으

-
- 83) 재상가의 婢夫가 된 吳某라는 사람이 장사차 나갔다가 얻어온 인삼을 대감과 벼슬아치에게 바쳐 그 덕으로 水師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는 이야기(『이조한문단편집 상』, '婢夫', 앞 책, 29-36쪽. 출전은 『궁구야담』, 『동야취집』.)는 권력자의 눈에만 들면 필부라도 능히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 준다.
- 84) 『이조한문단편집 상』, '嶺南寒士', 앞 책에서 영남 한사는 서울로 올라와 대감집 계집종의 비부로 들어간다.
- 85) 『이조한문단편집 하』, '雉', 앞 책, 188-189쪽. 출전은 『攪睡史』(편자, 연대 미상이나 19세기 후반의 작으로 추정).

로부터 곤장이나 얻어맞고 쫓겨날 것이니 어떻게 이 뜰 아래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면 등의 용력이 있다고 쳐 줄 것인데, 소인은 다섯을 때려 눕혔으니 다섯 사람의 용력이 있다 할 것이옵니다. 사또께서 이놈을 거두어 주심이 어떠하올지요? 86)

이렇게하여 이들은 권력층과 가까이할 기회를 마련하며, 마침내 그들의 신임을 얻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물론 이런 한문 단편 속의 이야기는 실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허구적 과장이 보태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이야기 속에는 당대인들이 서울이라는 곳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중세기적인 폐쇄적 관념 속에서도 서울은 비교적 열린 세계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당시인들에겐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5. 맺 음 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대전란을 겪은 조선조의 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의 서울은 권력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자본의 발달로 인구가 집중되어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고, 실학 사상의 발흥지로 새로운 사상적 기풍이 조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서울이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상의 변화는 이 시기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준다. 본고

86) 『이조한문단편집 중』, '盧同知', 앞 책, 53쪽. 출전은 『里鄕見聞錄』.

에서 고찰한 조선조 후기 서울 시정인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조 후기는 오늘날의 서소문, 남대문, 종각, 종로3가 일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상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영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서울은 점차 이익 사회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으며, 서울의 남북촌을 경계로하여 그 생활 습속도 달라졌다.

2) 시장 경제의 발달로 도시 상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해 갔던 반면, 한사나 궁반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화 현상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시정인들의 생활상은 빈부의 극대화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사치 풍조가 만연되기도 했다.

3) 상업 자본이 발달하고 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서울 시정엔 많은 사기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범람은 이익 사회가 낳은 어두운 측면이며, 세태의 변화, 인심의 변화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 할 만하다.

4) 이익 사회가 낳은 어두운 측면의 또 다른 예는 서울 시정에 많은 거지떼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개 집단을 형성하여 서울 시정에서 구걸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조선조 후기 과장의 문란상은 유명하다. 과장 주변에는 장사꾼들이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입자 대필자들이 끼어들었고, 그 속에서 공갈이나 협잡, 사기 등이 횡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시기의 약국과 연사는 만남의 장소, 한담의 장소로도 활용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문의 진원지의 구실도 했다.

또 이런 곳에서는 이야기 문학이 꽃을 피우기도 해, 이 시기 소설 문학의 발달에 일정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7)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서울 시정에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기수나 강독사들은 거리에서, 연사에서, 혹은 부자들이나 양반들의 사랑방에서 소설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해 주고 돈을 벌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시기에는 세책점도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떠돌이 책장수도 등장하고 있었다.

8) 조선조 후기 서울 시정에는 많은 인사들이 풍류를 즐기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촌에 살았던 일군의 문사들은 자연을 벗 삼고 시주를 즐기며 의로운 일을 행했다. 또한 沈鏞이나 西平君같은 이들은 일군의 가객과 歌姬들을 거느리고 이들의 패트론 역할을 하면서 풍류의 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서울 시정의 풍류인들은 각박해 가는 이익 사회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했던 이들로 보인다.

조선조 후기의 서울은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익 중시의 사회, 물질 중시의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 전통적관념으로부터 자유로와졌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려 하거나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단적인 예가 한문 단편에 보이는 상부한 여인의 개가의 모습과 연암의 소설에서 보이는 현실 중시의 사고 방식이다.

상부한 여인을 개가시킨다는 것은 당시의 관념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문 단편 속에선 이들의 개가를 성사시킴으로써 전통적 관념을 부정하고 있을뿐만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려는 적극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연암의 소설 중 『허생전』에선 허생의 아내로

대변되는 신흥 가치관에 의해 허생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이 매도되고 있으며, 『예덕선생전』에선 천하지만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엄행수의 삶을 통해 현실적 가치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서울은 당대인에게 열린 세계, 가능성의 세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부에의 가능성을, 힘없는 자들에겐 힘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세계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은 서울로 올라와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갖은 꾀를 동원하였으며, 그 꾀가 맞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본고는 한문 단편과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조선조 후기 서울 시정인의 생활상과 그 지향 이식을 탐색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료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정치한 고찰이 요구된다. 특히 본고와 같은 연구는 특정의 문학 분야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문학 전반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